

실현될 것을 미리 보는 믿음의 역사

창세기 37:1-11, 히브리서 11:1-6

최정웅 목사님

요약

서론 :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을 나에게 적용 - 믿음의 그림을 그려라.

1. 복음의 흐름에 대한 그림을 그려라. 우리가 이 속에 있는 것이다.
2. 세계복음화의 미래 속에 있는 내 인생의 그림을 그려라.

결론 : 이것을 구체적으로 그리고, 기도로 연결시킬 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오늘은 맥주감사주일과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벌써 2015년이 절반이 지나갔습니다. 지난 반년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는 주일 되기를 바랍니다. 또 남은 반년을 어떻게 성령인도받아서 갈 것인지 기도하다가, 응답받는 오늘 하루, 한 주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지난시간에 이어서 히브리서 11장을 한 번 더 묵상하려고 합니다. 지난번 말씀을 통해서 히11장의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만큼 승리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그들의 믿음을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11:1에 말씀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다시 말하면, 믿음은 바라는 것이 실상이 되게 하고, 보지 못하는 것을 증거로 받는 답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능력이요 역사입니다. 이 믿음의 역사가 우리에게도 일어나도록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방법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 방법으로, 오늘은 인생에 대한 그림을 믿음으로 그리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건물을 지으려면 먼저, 어떤 건물을 지을까 하는 청사진을 그려봅니다. 조감도를 만듭니다. 그리고는 설계를 구체적으로 하고, 그 설계도에 따라서 공사를 해 나갑니다. 우리 인생에도 이런 그림이 필요한 것입니다. 요점은 애굽과 세계복음화에 대한 언약을 해와 달과 열한 별이 절하는 꿈으로 확인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왕이 될 것과 성전을 준비할 것을 두고 계속 기도하며 그림을 그려 나갔습니다. 그런 그림을 우리가 오늘 두 가지로 그려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이 지금 아무 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 있다면, 오늘 믿음의 눈을 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참사랑 가족들이 세계복음화를 위한 그림을 믿음으로 미리 그리는 응답을 이번 주간 받게 되기를 바라고, 특별히 우리 램넛들은 그런 비전을 발견하는 한 주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1. 복음의 흐름에 대한 그림을 그려야 합니다.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우리가 반드시 먼저 그려야 할 그림이, 복음의 흐름에 대한 그림이라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서 언약을 붙잡은 믿음의 사람들의 흐름을 우리가 잘 봐야 합니다. 시대마다 제양과 축복의 갈림길은 복음의 흐름을 누가 믿음을 따라가느냐 하는 데 있었습니니다. 우리 인생이 어디에 있어야 합니까? 복음의 흐름이 흘러가는 곳에 믿음으로 서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그림으로 가지고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야, 내 인생은 복음운동의 흐름 속에 있어야 되겠구나. 믿음의 선진들의 뒤를 따라가야 되겠구나. 내가 어린 시절에는 어떻게, 젊은 시절에는 또 어떻게, 장년 시절과 노년 시절에는 또 이리이러하게, 복음운동의 흐름 속에 있는 인생이 되어야 하겠다.’ 그런 그림이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결단하고 그림을 가져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고등학교 때 친구들과 교회 마룻바닥에 앉아서 기도하면서 서로 이야기했습니다. “야, 우리가 서울로 올라가자. 너는 정치인이 되어라. 나는 돈을 벌어서 너를 뒷받침해 줄게.” 그렇게 서로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그런 친구들도 많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런 믿음의 그림을 그렸던 것이 오늘의 나를 있게 했던 것 같습니다. 같이 모여서, 음이 잘 나지 않던 오르간을 치며, 친구들과 둘러 앉아서 성경을 읽고, 찬송을 부르고, 눈물로 기도하며 서로의 꿈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인생의 그림을 그리고 마스터플랜을 짰습니다. 몇 살까지는 무엇을 하고, 몇 살에는 또 무엇을 하자 하는 것들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저는, 주님이 세상 계셨던 33살 까지 준비해야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정말 그대로 이루어져서, 저는 33세에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1975년 5월 6일입니다. 그렇게 인생에 대한 전체 그림을 그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는 사실 목회자가 되는 게 아니라,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목사님의 오른팔, 하다못해 왼팔이라도 되어서, 목사님을 위해 집도 지어드리고, 서재도 만들어드리고, 사역하시도록 도와드리고 싶었습니다. 어릴 때 시골에서 살면서 보니까, 전도사님 댁에 손님이 오면, 이웃에 있는 팬찰게 사는 집사님 집에 모시게 되었습니다. 손님 대접할 수 있도록 다 갖춰 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일을 하고 싶었습니다. 집사나 장로가 되어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오히려 직접 목사가 되어서 여러분의 사랑을 받고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림을 그려 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과 기독교사를 쭉 훑어보면, 이 복음이 어떻게 흘러왔는지를 간단히 확인하면서 보려고 합니다.

(1)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인이 창조되었는데, 창3장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인생 문제로 인해 허물과 죄로 완전히 죽어버린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바로 하나님께서는 지체하지 않으시고,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근본 언약입니다. 복음의 흐름의 첫 시작입니다. 이 창세기 3:15의 언약을 놓치면 시대마다 문제가 왔습니다. 반대로 시대마다 이것을 붙잡은 사

람은 세계를 변화시켰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살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다. 하나님을 나를 용서하셨다.’ 이 비밀을 가진 사람들은 세계를 변화시켰습니다. 모세에게 하나님은 희생 제사를 드리도록 언약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출애굽기 3:18입니다. 이 약속이 실현되는 유월절 날 밤에 이스라엘에게 해방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어떻게 200만 명의 백성이 하룻저녁에 탈출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하셨습니다. 이사야 7:14에, “너희가 나를 떠나 망했는데, 그러나 내가 너희를 살리기 위해서 너희에게 오겠다. 임마누엘로 오겠다.” 이 언약을 붙잡고 응답을 받아 승리한 사람들에게 대한 기록이 구약성경입니다.

(2) 이 구약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우리에게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마16:16에,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도 이 고백을 듣고 놀랐습니다. “네가 어떻게 이것을 알았느냐? 네게 이것을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너는 베드로, 반석이다. 이후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내가 세울 것이고,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고,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겠다.”

(3)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완전 복음을 가진 초대교회는 수많은 고난과 핍박을 당했습니다. 유대인이 핍박하고 대 로마제국이 핍박했습니다. 그러나 이 복음의 흐름 가진 자를 막지 못했습니다. 결국 250년 만에 대 로마제국을 기독교가 완전히 점령한 것입니다.

(4) 그런데 이 복음이 중세 시대로 가면서 점점 변질되어 없어져 버렸습니다. 슬픈 일입니다. 중세 천주교회는 율법과 교권, 육신의 권력에 빠져서 완전히 타락해 버렸습니다. 현장에 복음이 증거되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때 이 복음을 회복하려는 운동이 일어났는데, 몇 사람의 개혁자들이 나와서 복음으로 돌아가지고 외쳤습니다. 이 사람들이 천 년의 응답을 받고 복음을 회복했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로마서 1:16-17을 들고, 루터와 칼뱅은 결국 종교개혁을 해낸 것입니다.

(5) 그리고 다시 500년이 지났습니다. 다시 교회가 복음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복음의 유일성 대신에 통합종교시대가 와 버렸습니다. 그러는 동안 우상종교는 문화, 사회로 파고들어서 세상을 계양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어제 SNS를 보니까, CBS의 대기자간증을 했습니다. 사장이 자기를 보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 전에 신천지 취재를 했는데, 다시 신천지를 취재하도록 사장이 시켰다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했는데 또 하라고요?” 그랬는데 사장이 강하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지금 기독교인은 850만 명밖에 안 되는데, 신천지나 여호와의 증인, 하나님의 교회까지도 기독교라고 답했을 것 아닌가. 그런 사람이 150만 명이나 된다. 그러면 기독교인은 실제로 600~700만 명밖에 안 된다. 이 사람들이 점점 늘고 기독교인이 점점 줄어가는데, 50년쯤이 지나서 그 이단들이 500만 명이 되고 기독교인이 250만 명이 되면 기독교는 어떻게 되고 이 나라는 어떻게 되겠느냐?” 그래서 빨리 나가서 조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가서 기자들과 함께 조사했는데,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지금 WCC는) 천주교와 같이 직제를 통일하고 안고 있습니다. 진짜 이단, 통일교나 박태선, 신천지 같은 것은 완전히 이단입니다. 신천지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이만희 교주는) 원래 장막성전 교단에서 신부림하던 인간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그 교단을) 여자한테 주기로 하고, 교단은 옛날 부인과 아들에게 남기고 있다고 합니다. 그나마 이런 것들은 다 이단이라고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더 나쁜 놈이 있다고 합니다. 통합종교를 이야기하고, 부활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정통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것들을 보고는 이단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고 하는 인간들을 보고는 이단이라고 안 합니다. 동성애자를 다 허용하자고 합니다. 미국에서는 연방법원에서 합법으로 인정했습니다. 여러분도 아들이 남자 데리고 들어와서 결혼하겠다고 하는 날이 온다는 말입니다. 이게 지금 아주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지지하는 지도자들을 자꾸 찍어 주고 있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혀 보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더 무서운 것들입니다. 기독교를 희석시켜서 완전히 무너뜨리는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잘 들어보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럴 때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회복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흐름이 지금 보이십니까? 자꾸만 복음이 상실되어서 전 세계에 문제가 올 때 이 복음 회복한 사람들이 일어나서 복음의 흐름을 이어 왔는데, 그 물줄기가 지금 우리에게 와서 머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이 물줄기를 타고 다음 시대로 흘러가는 인생이 된다면,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과 우리 후대의 인생이 전부 이 복음의 흐름 속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나를 멸망의 시대 흐름 속에서 건져내어 주셔서, 방주운동, 유월절운동, 그리스도운동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것만 해도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감사해야 합니다. 이 시대에 부름받은 나의 정체성에 대한 그림을 분명히, 확실히 가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역사의 흐름 속에서 나는 어디에 있는가를 보면서, 이 복음의 진리를 사수하기 위하여 결단해야 되겠습니다.

저는 함숙훈런 1기를 받으면서 속에 두 가지 고민을 가지고 왔습니다. ‘내가 나름대로 신학 교육을 제대로 받은 사람인데, 무슨 교육을 또 받아야 하나. 내가 그렇게 모자람.’ 그런 것이었고, 또 한 가지의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목회를 하면서 복음 전하려고 해도 사람이 안 변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우리가 어렸는지 기억이 나십니까? 봄, 가을에 부흥회를 해야 합니다. 봄에 부흥회 해야 겨우 여름 보내고, 그러다가 또 시들어지니까 또 가을에 부흥사 데리고 와야 합니다. 그러면 겨우 겨울을 버티다가,

또 이제 안 되고 오뚝이처럼 옛날로 돌아가버리니까 봄에 부흥회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계속 반복되는데, 아무리 고생을 하고 집회를 해도 교인들이 전혀 변하지 않고, 또 제자리로, 원래의 모습으로 가 버리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복음 들어가면 사람이 변한다고 했는데 말입니다. '야, 이게 진짜 왜 그럴까. 하나님의 말씀인데 왜 그럴까.' 그런 고민을 가지고 갔는데, 그 작은 사람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계속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웃음) '무슨,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누가 모르나. 그 말을 누가 안 하나.'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놀라게 된 것이 생겼습니다. 남자, 여자 한두 사람이 나오더니 간증을 차례대로 하는데, 놀라 버렸습니다. 평신도인데 너무 확실한 답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이 모든 문제의 해결인데, 돈 문제, 남편 아내와의 관계, 아이와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시택과의 관계, 전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으로 다 끝났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가 수도꼭지에서 물이 끊어지지 않고 나오듯이 줄줄 나오는데, 저는 그때 솔직한 생각으로, 저 한 사람과 당시 우리교회의 교인 500, 600명을 다 바꾸고 싶을 정도였습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여러분, 그때 내 마음이 그럴 정도였습니다. 그만큼 내가 감동을 받았습시다. 그때 내가 많이 울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예수만, 그리스도만 전하면 되는데, 왜 나는 지금까지 그렇게 쓸데없는 말을 하려고, 밤새 혀가 터져 가면서 이 책 저 책을 뒤지면서 밤을 새웠다는 말입니까." 얼마나 힘들었는지, 일 년 중 1/3을 혀가 터져서 살았습니다. 어떤 날은 교인들이 모여오는데 메시지 제목조차도 생각나지 않았습시다. 여러분은 그 심정을 모를 것입니다. 어떤 날은 방에서 땅을 치며 울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구약은 메시아, 신약은 그리스도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게 되었는데, 하나님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을 의지하면 당신은 세상, 사탄을 이길 수 있고 주의 천사의 도움을 받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도무지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것을 깨달은 이후부터 메시지가 변했습니다. 굉장히 강하게 말했습니다. 독이 올라서 말도 세졌습시다. "나갈 사람은 나가라." 그러면서, (웃음) 그래서 장로님이 일곱 명이 나가고 교인 250명이 나갔습시다. 절반이 나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목사님, 옛날이 참 좋았습니다." 그랬습시다. 달래주고, 자기만 봐 주고 그래 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일부러 안 합니다. 그래도 남아있는지 보려고 그렇습니다. (웃음) 이 말은 처음으로 합니다. 류목사님과 겸상을 해서 밥을 먹는데, 류목사님이 저보다 8년 연하입니다. 그런데 조기가 한 마리밖에 없었습니다. (웃음) 그러면 하다 못해 반을 나눠서, '목사님, 같이 드시죠' 하면서 연장자에게 줘야 할 것 아닙니까? 자기 혼자 다 먹는 것입니다. (웃음) 가만히 생각하면서, '야, 이 사람이 사람을 시험하는 건가.' 전혀 배려를 안 합니다. 일단 그때 나는 손님이었는데 말입니다. 그 다음에 내가 생각을 가만히 해 봤습시다. '야, 이분이 이래도 붙어있었느냐 하는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구나.' 이런 시험을 한 것이었습니다. 이런 저런 것 가지고 시험 들면 복음을 위해서 죽을 수 없고 복음을 위해서 살 수 없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우리는 붙어있는 것이 아닙니까?

2. 세계복음화의 미래 속에 있는 내 인생에 대한 그림을 그려야 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큰 두 번째는, 우리가 믿음으로 분명이 가져야 하는 그림이 또 하나 있는데, 바로 세계복음화의 미래 속에 있는 내 인생에 대한 그림입니다. 여러분, 미래에 대한 그림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이제까지 어디에 내가 있는가를 알았다면, 미래에 대한 그림도 이제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러다가 그냥 죽을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1)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죄와 사탄과 지옥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구원의 길을 여셨다는 소식이 복음인데, 이 복음을 세계의 모든 사람이 듣게 되는 것을 보고 세계복음화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 천국 복음이 땅 끝까지 증거된 후에 인자가 오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4:14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하였고, 땅 끝까지 증인이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세계복음화를 계획하시고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2) 그렇다면,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있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세계복음화라는 하나님의 소원이 내 삶과 맞아야 합니다. 포커스가 맞아야 합니다. 세계복음화라는 방향이 내 미래가 되어야 맞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하는 것은, 내 인생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그림으로 미리 그리고 계속 붙잡고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나중에 내가 성공할 것이다' 하는 것을 그림으로 그리고 긍정적인 생각을 계속 하면 이루어질 것이라는 불신자들의 이론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셨기 때문에, 사람이 절대로 막을 수 없는 복음화의 흐름과 그 그림 속에 내가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내 삶이 어떻게 하면 세계복음화와 연결될 수가 있는지를 생각하셔야 합니다. 어느 대학에 갈 것인가가 아닙니다. 내가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있어야 하는 대학이 어디인지를 목표로 정해야 합니다. 어제 강호인 목사님 막내딸이 인사를 하러 왔습시다. 왜 왔나 했더니, 하버드대학 정치외교학과에 합격했던 것입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미 국무장관 장학금을 전액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다, 앞으로도 계속 기도해 달라' 하면서 인사하더니 돈이 있으면 한 백만 원 주고 싶었는데 주머니가 비어 있어서 보고만 왔습시다. (웃음) 이런 아이들이 계속 자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하는 말입니다. "저는 공부해서 정치 외교 사회에 복음이 흘러들어가도록 하고 싶습니다. 그 세계에도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아이들의 가슴 속에 그런 꿈, 그런 그림을 가지게 되는 것 자체가 엄청난 일 아닙니까? '돈을 많이 벌

어서, 큰 집 짓고 행복하게 살 것입니다'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살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램프들이 계속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무슨 일을 해서 먹고 살 것인가 고민하는 게 아니라, 내가 무슨 일을 해야 세계복음화와 관련된 것인가를 생각하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미래에 대한 그림을 그리라는 것은, '내가 앞으로 성공할 것이다' 하는 그림을 그리라는 게 아니라, '나는 전도운동을 위하여 어떻게 쓰임을 받을 것인가,' 그것을 찾아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생각하면서 사업을 계획해 보십시오. 그것을 생각하면서 짝을 찾아보십시오. 그것을 생각하면서 학교를 생각해 보십시오.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3) 그렇게 응답받은 대표적인 인물이 사도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은 자기 생애에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그림을 처음부터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 9:15에 주님이 직접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 말씀을 미리 듣고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기도하는데, 중요한 부분들이 나왔습시다. 이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구체적인, 단계적인 그림들이 그려지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19:21에,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런 가운데서 나온 꿈인 것입니다. "로마복음화를 해야 세계복음화가 되겠구나." 로마서 15:32에, "내가 로마를 거쳐서 저 서바나(스페인)까지 갈 것이다." 그때의 지도로는 서바나가 땅 끝이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거기까지 간 것입니다. 그 당시에 서바나 사람들이 대단했던 모양입니다. 네로 황제의 스승이었던 세네카 같은 사람도 스페인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야겠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놀랍게도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은 그 그림을 바울에게 성취시키셨습니다. 사도행전 23:11에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로마에서도 나에 대하여 증거하여야 하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로마에 보내서 로마에서 나를 증거하게 하겠다' 하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7:24에는, "내가 가이사 앞에도 서야 할 것이다. 이 바다에서 너는 빠져 죽을 수 없다. 반드시 가서, 로마 황제 앞에서 너는 나를 증거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꿈을 꾸게 되면 하나님은 그 꿈에 은혜를 베푸셔서 역사를 하시게 된다는 말입니다.

(4) 그래서 우리는 바울처럼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붙잡고, 그것을 구체화할 수 있는 인생여정을 계획해야 되겠습니다. 이번 주간, 인생 전체를 두고 복음의 흐름을 따라서 전도운동을 실천할 마스터플랜을 그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 도표를 그려 보십시오. 로드맵(road map)을 만들어보라는 말입니다. 앞으로 일어날 인생 도표를 그려 보라는 것입니다. 같은 말입니다. 인생에 대한 제대로 된 그림을 가지고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결론이 있습니다. 이 그림을 기도로 바꿀 때, 이 그림을 그려 놓고 기도로 나아갈 때 비로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노아가 그랬고, 아브라함이 그랬고, 모세가 그랬습시다. 이것이 히브리서 11장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이로써 선진들이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그림을 그리고, 이것을 기도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면, 이것이 증거로 나타나서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 증거를 히브리서 11장은 11장에 기록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복음 누리는 기도와 함께,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나에게 구체적으로 적용시키는 기도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림을 그릴 때는 최대한 구체적으로 그려야 합니다. 교회와 자신에 대한 그림을 사실적으로 그려야 합니다. 현당을 이루어달라는 기도가 좋은 기도이지만, 현당을 위하여 내가 어느 정도 축복을 받아야 되겠는가를 두고 구체적인 것을 그림을 그릴 필요가 있습니다. 선교사 100명 파송을 두고 기도하는데, 내가 그 중에서 어느 정도를 할 것인가, 어디를 선교지로 품을 것인가를 두고 구체적으로 그림을 그리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필요한 이것을 위해서 인턴십도 하는 것입니다. 대화도 나누고 포럼도 하며, 어떤 때는 직접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만큼 그림이 구체화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이제는 기도로 집중하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그림을 두고 계속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 전문성과 함께 성취의 날을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요셉이 품은 그림이 그대로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나는 33세 쯤 목사가 될 것이다. 그때부터 내 생을 바치겠다' 그랬는데, 정말 그때 내가 목사가 되었습니다. 저는 여력이 전혀 없었는데도, 하나님은 그림대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믿음의 그림이 실현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반년을 지냈습시다. 오늘은 맥추감사절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두고 감사해야 할까를 생각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복음의 흐름에 내가 서 있는 것을 감사하면서, 세계복음화의 미래 속에 있는 내 인생에 대한 그림을 다시 그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시간입니다. 한 주간 동안 이 그림을 그리면서 인생의 마스터플랜을 마련하는 기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무 방향도 목표도 성취도 없는 불쌍한 삶이 아니라, 분명한 그림이 있고, 분명한 골(goal)이 있고, 방향이 있고, 주님이 허락하신 응답이 있는 삶을 살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시간 사랑하는 참사랑 가족들이 히브리서 11장을 다시 읽으면서, 믿음의 선진들의 고트머리에 우리가 서 있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우리 후대들에게 또 전해 주어야 할 믿음을 마련하는 기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